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story of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 from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이 연 옥 (Yeon-Ok Lee)*

〈 목 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 의의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II. 외적 조건 - 미군정기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행정체제와 현황 2. 사회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III. 내적 조건 - 초기 도서관인들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V.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설립 운동 2. 독서운동 3. 사회교육운동과의 연계 V. 공공도서관 운동의 평가 VI.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과 성과들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공공도서관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되어 왔는가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도서관계의 상황과 그 속에서 전개된 공공도서관 운동의 구체적 과정을 정리하고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library movement developed from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nd to identify the causes and the progress of the movement in the context of library history in Korea. For this, the circumstances in the Korean library world and the proces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from 1945 to 1950 are reviewed. Finally the result and the limit of the movement are evaluated as well.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I. 서론

1. 연구의 의의

한국의 근대적 도서관 운동은 외세의 열풍이 강하게 몰아치던 개화기 때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다. 서구문명에 대한 개화사상이 움트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과 지식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였기에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운동의 차원에서 도서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지식과 새로운 사조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열망에서 벌어나갔던 개화기의 도서관운동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일제는 문화정책 표방 이후 여러 주요 도시에 도서관을 설립하였으나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지식 접근과 보급은 봉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도서관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해방 직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해방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종말과 함께 분단시대의 개막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연출했으나 빼앗긴 민족의 국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현대국가를 건설하는 한국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도서관계에 있어서 해방은 새로운 현대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일제의 도서관을 온전히 이관하여 해방된 조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우리 민중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혼란기는 도서관계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제 도서관제도의 잔존과 더불어 서구식 도서관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로서, 서구식 도서관 교육제도에 의거해서 사서가 양성되고 전문단체가 결성되는 등 현대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들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현대 도서관사를 규명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을 추적하여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공공도서관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되어 왔는가를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바로 이 땅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를 토착화하려는 자생적인 경험과 도전, 성공과 좌절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조명함은 이후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방향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해방 이후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피는 이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남한사회에 한정하고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로 국한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의 도서관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시기의 도서관 현상과 도서관운동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규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II. 외적 조건 - 미군정기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동사를 정리하기 앞서 공공도서관운동의 외적인 환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남한은 미군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미군은 남한에서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급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미군에 의해 다양한 교육문화정책이 수립되었으며, 학교와 도서관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 시기 도서관 발달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군정기에 있어서 도서관의 행정 체계와 그 당시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교육정책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서관 행정체계와 현황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의 교육담당 군정요원으로 라카드(Earl N. Lockard) 대위가 발령받게 되는데, 그는 미군정 학무국장으로 한국 교육관계 업무를 관장했다.¹⁾ 미군정의 교육정책과 방침은 라카드를 중심으로 한국측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한국의 도서관 정책 또한 미군정정의 학무국에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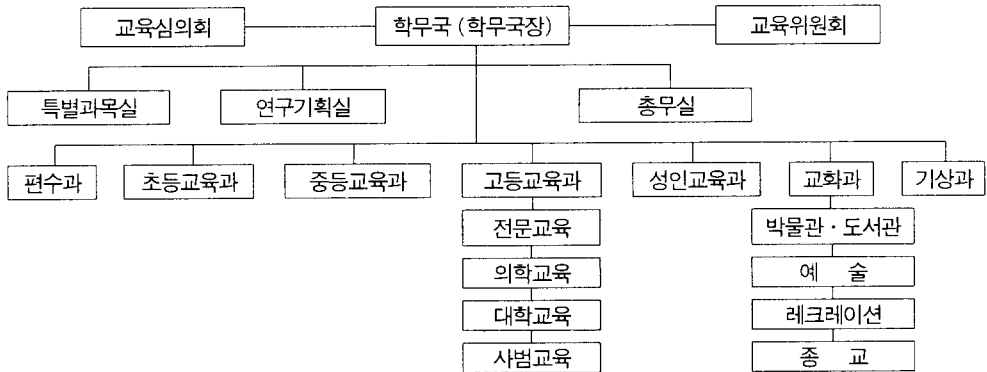
먼저 미군정 당시의 도서관 행정조직을 살펴보자. 학무국장 라카드는 1945년 10월 일제시대의 사회교육과를 개조하여 학무국 내에 문화과를 설치하고 도서관 업무를 이곳에서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후 1945년 12월의 개편에서 문화과를 예술계와 종교계로 나누어 도서관업무를 예술계가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1946년 1월 21일 문화과를 교화과로 대체하고 이를

1) 한준상·김성학, 『현대 한국교육의 인식』, 청하, 1990, p.9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박물관·도서관계, 예술계, 종교계, 레크레이션계의 4계로 구분하였다. 이때 개편된 학무국의 체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946년 1월21일 개편된 학무국 조직도



(출처: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상』, 홍지원, 1992, 525쪽.)

<표 1>을 보면, 개편된 학무국의 조직이 학무국장 산하 3실, 연구기획실, 특별과목실, 총무실, 그리고 7과 즉 편수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성인교육과, 교회과(박물관·도서관, 예술, 레크레이션, 종교), 기상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을 맡고 있는 문화과는 초기에 두 개의 주된 계, 즉 예술과 종교로 운영되던 것이 4개의 분과 즉 박물관·도서관, 예술, 종교, 레크레이션을 포함하는 교회과로 전환하였다.²⁾

그 당시 미군정측의 문화과를 담당한 이는 웰치(육군중위), 스틸(육군대위), 미첼(육군중위), 크네즈비츠(육군대위), 기파드(육군대위)였으며, 한국인으로서 도서관행정을 담당한 이는 윤세구였다.³⁾

한편, 미군정청 학무국장 라카드는 1945년 10월 31일 미국으로부터의 교육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교육원조추진심의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심의회에 의해 미국의 교육원조계획이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심의회는 우선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차적으로는 교육심리학, 철학, 학교행정, 교과서 편찬 및 출판, 체육, 유치원 및 초등교육, 초등·중등교육 교사양성, 시청각자료, 도서관학, 특별교육활동의 10개 분야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문가가 미국으로부터 내한하여 약 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교육계에 자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⁴⁾ 이 당시 도서관의 자문역으로는 존슨(Anna V. Johnson)과 그라

2)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상』, 홍지원, 1992, p.528.

3) 한준상·김성학, 앞의 글, pp.95-96.

4) 이외에도 심의회는 한국의 유학생들을 미국에 보내어 미국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귀국하게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더불어 약 100명의 한국의 교육자를 미국에 보내어 3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교육방

함(Mac Graham) 등이 파견되어 문화국내에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거나 지도 하였으며 미국 도서관의 사정과 현황을 소개하였다.⁵⁾

이제, 미군정 당시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자. 해방 이후 6.25이전까지 3.8선 이남에 설립되어 있던 도서관은 국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을 합해 모두 34개로 확인된다. 아래 <표 2>를 잠시 참조해보자. 이 표를 보면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19개의 공립도서관과 15개의 사립도서관을 합하여 총 34개의 도서관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도서관은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접수하여 시설의 면에서도 파손은 적었으나 서적을 제대로 구비한 곳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표 2> 해방 직후의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 현황

번호	구분	국공립 도서관명	설립년도	사립 도서관명	설립년도
1		국립도서관	1925	안성도서관	1932
2		부산부립도서관	1901	중경문고	1942
3		대구부립도서관	1919	고령민중도서관	1945
4		광주부립도서관	1920	원주청년도서관	1945
5		서울부립종로도서관	1921	강릉문화관	1945
6		인천부립도서관	1921	여수문화관	1946
7		서울부립남대문도서관	1922	강원도서관	1946
8		개성도서관	1924	영민도서관	1946
9		청주부립도서관	1924	우리글방	1946
10		마산부립도서관	1928	진주도서관	1946
11		북포부립도서관	1928	문경농민도서관	1947
12		군산부립도서관	1933	밀양도서관	1947
13		전주도립도서관	1937	녹산도서관	1948
14		대전부립도서관	1940	삼보도서관	1948
15		춘천부립도서관	1946	대구동촌후생문고	1949
16		제주도립도서관	1948		
17		수원부립도서관	1949		
18		이리도서관	1949		
19		전남도립도서관	1950		

(출처: 아래의 각주7)을 참조)

법을 연구하고 학교를 시찰하는 미국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의 문화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군정청의 미국 교육원조 요청계획의 주요 골자였는데 이후 미국무성에서 이를 추진하게 된다.(정태수, 앞의 글, p.64.)

5) 김봉희, “미군정기 도서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2(1996), p.44.

6) 위의 글, p.48.

7) 이 표는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 213쪽과 김봉희, “미군정기 도서관에 관한 연구”, 52-53쪽 그리고 김포옥, 「광복이후 공공도서관사 연구-일제하 공공도서관 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0, 13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위 <표 2>에 따르면 공립도서관의 경우 해방이전 일제시대 때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고 해방 이후 세워진 것은 5개관에 지나지 않는다. 사립도서관의 경우 전체 15개관 중 해방이후 설립된 것이 13개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당시는 사립도서관설립이 보다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군정 당시 공립도서관 설립 사업은 매우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미군정기 도서관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교육정책상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교육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보다 오히려 사회교육이 미군정 당시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은 군정 당국의 계획 하에서 진행된 것과 민간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군정당국에서 주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은 민간에서 이루어져 민간주도의 사회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의 사회교육은 성인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교육 내지는 국문해독교육이 중심이 되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생활 개선 교육도 실시하였다.⁸⁾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름의 이유를 미군정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지배를 위한 전략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교육활동을 통해 한국인과는 별다른 감정적 유대관계가 없었던 미국의 양키문화가 한국인에게 의미가 있고 관계있는 문화로 수용될 수 있었다.⁹⁾ 하지만 일제 식민지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다수가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새로운 국가건설에 있어서 높은 문맹률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맹퇴치교육은 그 당시의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에 미군정이 주도한 사회교육운동은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전략이 되었다.¹⁰⁾

한편, 사회교육의 사무는 성인교육과와 교화과로 나누어 취급되었는데 이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과

일반계몽에 관한 사항

국민 재교육 및 국민 정신 교양에 관한 사항

성인교육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8) 김인용, 「미군정기 한국교육의 전개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2, pp.118-119.

9)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563.

10)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가 모국어(한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태수, 앞의 글, p.120.)

- 성인교육협조단체 감독에 관한 사항
- 성인교육 제반 시설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성인교육 지방 사정 조사에 관한 사항
- 성인교육 보고, 기타 성인교육에 관한 서류 발행에 관한 사항
- 성인교육 연예에 관한 사항

교화과

- 명승, 천연기념물의 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보물, 고적, 기타 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종교 및 유교에 관한 사항
- 성균관 및 향교, 유림단체에 관한 사항
- 각종 개인 종교에 관한 사항
- 전능, 서원 및 사원에 관한 사항
- 박물관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 일반 및 단체교육에 관한 사항
- 일반 음악, 극장, 영화, 무용, 미술 및 공예에 관한 사항
- 미풍, 민속, 진흥 및 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종교 및 사회교화 관계에 관한 사항
- 미술박람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교화에 관한 사항¹¹⁾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 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정기 사회교육에 있어서 주를 이루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맹퇴치교육이었으며, 그 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신교육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사회교육은 주로 국문강습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성인교육협회 등의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경우 전체 사회교육의 틀 속에 설정되고 있었으나 사회교육을 위한 본질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미군정의 사회교육정책의 활성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이 설치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제도교육 외 차원에서 성인교육과 문맹퇴치교육, 국가건설과 민주시민에 적합한 정신 교육이 사회전체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도서관이 그러한 흐름에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11)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pp.98-99.

어 “해방 후 전국에 걸쳐 문화시설로 완비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에 불과하였고 다행이 짚에 있어서도 다른 시설에 비해 양호하였다는 점”¹²⁾을 고려해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1947년도 『조선연감』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교육에 대한 실상과 입장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나름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의 사회교육은 극히 不完備하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시민 일반의 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이 보급되어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교양은 일층 더 그 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반세기간 일제의 식민지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조선에서는 민족의 자주성, 인격적 교양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일제 지배에 묵묵히 순종하는 「양민」을 만들기 위하여 정신마비 수단으로서 소위 사회교육을 실시함에 불과하였다. … 팔·일오해방과 함께 일제의 소위 사회교육의 기만성은 폭로되고 말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교육의 재건은 아직 과학적인, 건설적인 방면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동·식물관이 우리 손으로 운영되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것을 진열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며 새로 민족박물관을 창설한 것도 特記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이용이 보급이 되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실질적 교육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정식교육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가지지 못한 노동층에게 특히 사회교육의 필요가 절실하며 실질적으로 내용있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정신과 훈련이 긴급한 것 인즉 급후 사회교육은 이 방면으로 구체화시키지 않고 일제의 그것을 접수하여 내용만 바꾸어 넣음으로써 만족하여서는 안될 것이다.¹³⁾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종교기관을 필두로 하는 각종 설교 시설 중심의 사회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도서관, 박물관 등은 극히 불충분한 명목뿐인 시설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비롯한 이런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마저도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이에 순종하는 양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였다. 즉 식민지 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왜곡한 결과 해방 이후에도 그것의 잔재가 남아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사회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주로 도서관이 학생들로 채워지는 상황이었다. 이것 또한 도서관으로 하여금 성인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음의 자료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12) 라성(LA)과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해방조선』, 미주: 라성(LA)과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8, p.220.

13)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7, p.213.

… 도서관의 본질적 대상은 사회성인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인층이 자유로이 이용하여 효과적 방법으로 자기 향상에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그런데 근일에는 도서관이 시험준비의 장소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흥미있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배반될 것이다. 그런데 과거 일제가 도서관 경영을 학생에 대상을 두고 유지 발전시킨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일제시대의 잘못된 습관과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존속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이 존속된 현상에서 해방 후 성인교육의 대상인 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할만큼 학생들의 많은 이용 때문에 성인교육시설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¹⁴⁾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도서관의 주고객이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 서비스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서관이 성인교육의 주된 공간으로 자리잡는데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도서관은 사회교육 전개의 중심기관으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적 기관이라기보다는 문화정책의 한 기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혼란기의 도서관사업은 교육에 비해 덜 절실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전체적으로 사회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도서관은 사회교육의 주된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도서관은 해방 후 전국에 걸쳐 문화시설로 완비되어 있고 그 질도 다른 기관에 비해 양호”¹⁵⁾했다는 객관적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여 일반 시민에게 보다 대중적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Ⅲ. 내적 조건- 초기 도서관인들의 활동

이제, 해방 직후 초기 도서관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도서관계 내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초기 도서관인들의 활동 규명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도서관계의 내부적 조건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도서관계 역량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도서관계 있어서 급선무는 일제로부터 도서관을 제대로 인수하는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 아래 운영되어 왔던 모든 도서관들을 우리의 손으로 넘어오게 하는 일로부터

14) 김영문, "도서관과 성인교육- 사용과 이용에 있어서", 《文苑》(국립도서관보), 31호(1948. 9. 1).

15) 라성(LA)과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앞의 글, p.220.

도서관계의 본격적 활동은 시작된다.

먼저 조선 총독부 도서관 인수는 해방을 맞이한 그 다음날인 8월 16일에 조선총독부에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접수할 것을 결의한 뒤, 박봉석, 이선영, 강춘수 3명이 대표가 되어 일본인으로부터 서고의 열쇠를 인수하여 전 장서를 접수하기에 이른다.

이후 박봉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관수호 문헌 수집위원회'¹⁶⁾를 조직하여 시내 각 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관을 접수하는 일을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혼란기적 상황에서 피해 없이 조직적으로 장서를 완전하게 접수하게 된다. 당시의 도서관 접수에 참여했던 도서관인들은 이 작업을 "민족의 사상과 정신적 유산인 장서를 일본으로부터 인수하는 일"¹⁷⁾로 간주하며 상당한 사명감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문헌수집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해방직후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각종 인쇄물-포스트, 뼈라에 이르기까지를 수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들 자료들이 건국사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당시 발간되는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수집대는 종일 거리를 헤매었다고 한다.¹⁸⁾ 이것은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한다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사명감의 발로"¹⁹⁾였다고 볼 수 있다.

박봉석을 중심으로 하여 도서관을 접수하는 활동을 펼친 위원회는 개별적인 도서관의 행동보다는 보다 조직적이고 안전한 접수활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해방을 맞은 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도서관인들을 묶어내는 단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1945년 8월 18일 박봉석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 시내 18개 도서관에 안내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안내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謹 啓

乾坤一擲에 朝鮮의 黎明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江湖諸氏와 함께 경축함을 마지 아니합니다. 建國之際에 우리 도서관계도 새로운 힘과 서광을 받아 활발한 보조로 장래를 기약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全朝鮮 圖書館 及 관청, 회사, 학교의 도서관 諸氏는 대동단결하여 朝鮮圖書館聯盟(假稱)의 결성이 時急之事로 인정하나이다. 우선 在京 有志者를 會問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하오니 左記에 依하여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記

一. 時日 八月十九日 午後一時

16)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봉석(부관장), 서무: 강춘수(서기), 송포백(사서보), 재무: 박원하, 아현동서고: 이선영, 문헌수집대: 기타 잔여 직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1973, p.239.)

17) 위의 글, p.241.

18) 위의 글, pp.241-2.

19)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 종로서적, 1982, p.241.

一. 場所 南大門通二丁目 總督府圖書館
 一. 參席者 圖書館員 及 圖書館事業에 有志한 者
 八月 十九日
 朝鮮圖書館聯盟準備發起委員 代表 朴 奉 石²⁰⁾

도서관인의 단결을 위한 모임 결성을 위해 이처럼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이 당시의 사회가 혼란기라 8월 19일 개최하려던 준비위원회가 연기된다. 이후 1945년 8월 30일 마침내 조선도서관협회의 결성을 위한 「조선도서관협회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하게 된다. 이 준비위원회를 결성대회로 규정하게 되어 마침내 「조선도서관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 결성대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시내 각 도서관 접수에 관한 건, 전국의 도서관이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할 것, 近日中으로 대회 及 강습회를 개최할 것, 통일적인 분류표를 編著할 것' 이다. 또한 위원장에 박봉석을 상무위원에 박봉석, 이홍식, 노한현, 송몽룡을 서기에 강춘수, 이준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도서관협회가 창립하게 되고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도서관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일을 조직적이며 안정적으로 치러나갈 수가 있었다.²¹⁾

조선도서관협회 창립 활동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정식으로 인수받아 이를 국립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바꾸는 등 한국인에 의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모색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10월 1일 국립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10월 5일 미군정청이 관장에 이재욱, 부관장에 박봉석을 임명하였으며, 같은 날 국립도서관이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²²⁾

국립도서관과 도서관협회의 건립 이후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먼저, 국립도서관의 경우 개관 2개월만에 '법률도서관 이관문제' 라는 뜻하지 않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함

20) 당시 이와 같은 안내장을 발송받은 도서관은 해방 당시 서울시내의 도서관들로서 다음과 같은 도서관이 이에 해당된다. 京城府立圖書館, 京城府立鐘路圖書館, 交通圖書館, 京城電氣株式會社圖書館, 京城大學醫學部圖書館, 旭醫學專門學校圖書館, 普成專門學校圖書館, 延禧專門學校圖書館, 惠化專門學校圖書館, 李王織圖書室, 朝鮮史編修會圖書室, 遞信局圖書室, 本府文庫, 殖産銀行圖書室, 京城綜合專門學校圖書課, 京城帝大圖書館(한국도서관협회30년사편집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30년사』, 한국도서관협회, 1977, pp.26-7.)
 21) 이후 조선도서관협회는 1947년 4월 21일 국립도서관 강당에서 제1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 뒤 조선도서관협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22)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글, pp.242-243. 또한 이재욱은 1931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조선어학조선문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근무하였다. 그는 1943년 조선총독부 도서관 부관장에 임명되어 와병중인 관장을 대신하여 관장대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해방 바로 직전 이를 그만두고 대구에서 지방문화 활동에 종사하였다. 해방 직후 도서관인들로부터 국립도서관 관장직 요청을 받게 되고 몇 번의 사양 끝에 이를 수락한다.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2호)

으로써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45년 12월에 미군정청으로부터 법률관계 도서를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국립도서관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된다. 그 후 12월 23일 문교부 학무국장, 문교부 예술종교과장, 미국인과장 등 3명이 찾아와 법률도서 이관을 제기했으나 또다시 완강히 거절하고, 도서관장은 그 대안으로 필요한 도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대여해 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군정법령을 공포하여 법률 자료를 강제적으로 이관하려 하였다. 이에 도서관의 전 직원들이 「법률도서이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사회단체와 저명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게 되자 이 문제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진단학회, 법학자동맹, 문학자동맹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모여 「국립도서관도서수호협력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미군장관, 문교부장, 사법부장 등에게 그 부당함을 건의하고, 언론기관을 동원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게 된다. 그럼 당시 신문에 보도된 이와 관련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자.

국립도서관 소재의 법률관계 서적과 예산액 배분을 사법도서국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국립도서관 직원 일동은 그 종합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옹호코저 사회여론에 호소하고 있는데 1946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단학회, 법학자동맹, 문학자동맹 등 오십여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국립도서관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회의 결과 「국립도서관도서수호협력회」를 조직하여 법령 제 67호 제 3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러취 군정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의하였는데 건의문 제출은 오는 6일에 실행하게 되었다.²³⁾

이와 같이 국립도서관 직원과 전문 사회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국립도서관이용자들도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도서관협회 또한 미군정청에 법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가 그 당시 사회의 크나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미군정청은 1946년 5월 11일 법률도서의 이관문제를 거두게 된다.²⁴⁾ 법률도서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벌여낸 국립도서관의 노력과 싸움은 국립도서관 장서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의 법률도서 이관 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립도서관계와 도서관협회는 해방 직후 도서관제도의 확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한 활동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서교육문제이다. 도서관을 지키는 일과 함께 도서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서를 양성하는 것은 당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내고장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사립의 도서관

23) 「軍政法令은 修正해주: 法律書籍은 그냥 두우」, 《漢城日報》, 1946년 5월 5일.

24)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글, pp.246-249.

을 설립하는 지방이 속출함으로써 도서관의 일군이 요청되었고, 또 기존의 도서관들도 일본인들이 물러간 후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 일군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사서의 양성을 목적으로²⁵⁾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당시 국립도서관의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없는 문제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전문적 교육을 책임질 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한국 도서관학교 건립의 전망'이란 제목의 문서를 미군정청 국장에게 보내게 되는데 아래에 보이는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자료를 참조하면 그 당시의 사서양성교육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수신처: 학무국 국장

날짜: 1946년 1월 28일

제목: 한국 도서관학교 건립의 전망

새로운 한국문화를 건설함에 있어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기 전, 이 중요한 사업은 오로지 일본의 손에 있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 사서는 일본인이었으며, 그들은 또다시 다른 일본인 사서에 의해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 한국에서 퇴각한 후 도서를 다루는 모든 기관들은 훈련된 사서가 부족하여 새로운 한국문화를 건설하는데 대단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서둘러 모체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자신의 사무능력과 내부의 문화기관의 운용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하나의 단일체계로서 도서관학교를 건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훈련된 사서를 필요로 하는 국내의 도서관을 위하여 그것을 건립하기를 기대한다. / 국립도서관장 이재욱²⁶⁾

이 건의에 따라 1946년 4월 1일 「국립조선도서관학교」라는 교명으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사서를 양성하는 전문직 교육기관이 국립도서관 관할 하에 개교하게 된다.²⁷⁾ 이후 8월 31일 제1회 졸업생 20명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이전까지 77명을 배출하였다.²⁸⁾

국립도서관학교는 대학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서관학 교육을 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사서

25) 한국도서관협회3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41.

26) 정태수, 앞의 글, pp.1224-1226.

27) 이 당시의 미군정청 내부의 교육정책 문서를 참조하면 한국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문서에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명칭 및 위치: 한국 도서관학교, 한국 서울시 남대문동 2가 (국립도서관과 연결) ② 졸업기간: 6개월 ③ 입학자격: a.확고한 의지의 소유자 b.품행이 방정한 자 c.30세 이하인 자 d.중학교 보통학교, 여자 중학교 졸업자 e.중학교, 보통학교, 여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 ④ 학급 및 학생수 : 1학급, 50명 ⑤ 교과과정 명칭: 도서관 과정 ⑥ 학교개교일: 1946년 4월 1일(정태수, 위의 글, p.1226.)

28) 당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77명 중 그 이후 도서관계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사람으로는 박희영(제1기생), 천해봉, 리재철, 이철규, 차준일, 윤여택(이상 제3기생), 이병수(제4기생)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글, pp.343-345.)

를 양성한 교육기관으로 이후 도서관계에 활약하는 핵심 인사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립도서관학교」와는 또 다르게 진행된 「도서관사업강습회」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도서관사서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립도서관과 조선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조직한 단기교육 사업이다. 주로 도서관운영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았던 것으로, 현직에 종사하는 사서직에 대한 재교육과 도서관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시행되었다.²⁹⁾ 1950년까지 3회에 걸쳐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하게 된다.

이처럼 도서관계는 「국립도서관학교」와 「도서관사업강습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교육 활동으로 그 당시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일제로부터 인수받은 도서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서관계의 핵심인자로 남게 하는 등 도서관계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 우리 도서관계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제 도서관의 틀과 제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서구식 도서관 교육제도를 통해 새로운 전문적 사서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서관인들의 결집체인 도서관협회를 결성하는 등 한국 도서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후 도서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기반에서 도서관 운동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우리 도서관계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IV.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

앞에서 해방 직후의 도서관계의 내부적 상황을 국립도서관과 조선도서관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공공도서관에 중점을 두고 해방 직후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도서관 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도서관계의 주요한 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공공도서관계에 있어서 해방은 일제의 공공도서관을 온전히 이관하여 그 잔재를 청산한 뒤 해방된 조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우리 민중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러한 장대한 의미 한편으로 우리 손에 남겨진 공공도서관의 현

29) 참고로 제1회 강습회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관리법, 도서분류법실습, 도서의 의의, 조선문헌개관, 동양서목록법 및 실습, 서양서목록법 및 실습, 미국 최근의 도서관 사정, 국내출판계의 동향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글, p.339.)

실은 남루함 그 자체였다. 해방 직후 당시의 도서관 상황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자. 『종로도서관 60년사』에서 밝히고 있는 당시의 도서관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남한에는 국립도서관과 交通도서관을 제외하고 14개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가까워지면서 명목만의 도서관이었으며 거의 폐관상태에 있었고 개관하고 있었던 곳이 몇 곳 있기는 하였지만 이용자도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도서관들은 그대로 문을 닫고 있었으며 혼란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도서관이 없었던 지방에서는 새 도서관 설립의 운동이 일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해방 당시 남한의 도서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 손상이 적었으나 물자의 부족으로 서적이 없는 곳이 많아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도서관 관장인 이재욱, 부관장인 박봉석, 사서인 박희영 등 도서관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구적인 활동들이 전개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도서관 운동은 전국에 걸쳐 도서관을 세우기 위한 도서관 설립운동,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한 도서관 후원회 사업, 지식확산과 보급의 일환으로 진행된 독서운동,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도서관 설립운동

우선 문자보급과 지식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환으로 국내에 도서관망의 설치운동을 펼치게 된다. 일제 식민지시대 우리나라 말과 지식 보급의 차단, 그리고 일본에 의한 기형적 교육으로 말미암아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계 운동인자들은 지식보급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국에 걸쳐 도서관 건립 운동을 펼치게 된다. 국립도서관장인 이재욱의 1947년 신년사를 보면 그 당시 도서관 운동의 열기를 엿볼 수 있다.

인민이 주권과 영토와 아울러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의 하나라면 그 인민의 지식 내지 교양수준의 여하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체가 좌우됨은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자보급 및 지식수준이 외국의 그것과 비해서 가히 뒤떨어짐이 사실인 이상 우리는 이 과업에 대해서 적지 아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겨레

30)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종로도서관 60년사』,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980, pp.191-2.

의 약 8할이 문맹이고 이 모든 악조건하에 일본의 기형적 교육을 받아온 만큼 신국가건설에 있어서 온갖 지장이 빚어지고 있음도 모름지기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업은 참으로 시급하고 또 긴요한 것임을 반드시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필생적 학당이며 또 교양처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도서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고 또 도서관망의 조성이야말로 현단계에 있어서는 화급한 사업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³¹⁾

이처럼 문맹탈피와 지식에 대한 접근과 보급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려는 의도로 이른바 「一郡一館」 운동을 벌여 나갔다. 「一郡一館」이란 하나의 군에 하나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운동이다. 당시 국립도서관 부관장인 박봉석은 「一郡一館」운동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학교는 장차 일군이 될 학도 즉 제2국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연령과 연한 등의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도서관은 사회인 즉 일반 국민의 교육기관으로서 하등 제한도 없다. 언제든지 동서고금의 문헌을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문화전당인 도서관을 이용하여 신지식을 배우고 세계사조를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있지만 생활관계로 혹은 지역관계로 그 은택을 입지 못한 사람과 또는 지방이 많이 있을 줄 안다. 여기서 나는 「一郡一館」이란 표어를 걸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배워야 한다. 40년간 남의 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조선적인 새 이념하에 사오십까지 전부 재교육이 필요하다. 現下에 있어서는 학교교육보다도 성인교육이 더 긴급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관이 극히 불충분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 현대적 도서관의 사명은 도서대여의 소극적인 사무만이 아니고 전람회, 강연, 문화강좌, 계몽교육 등의 적극적인 부대사업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一郡의 사회교육의 충분부가 될 수 있다. 도서관 사업발달의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지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이 모든 것이 지식욕의 발현이며 문화인의 염원이다. 문화인이여 쫓기하라.³²⁾

당시 이와 같은 「一郡一館」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북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³³⁾과 패전 후 일본이 도서관법을 만드는 등 도서관제도 확충에 주력하는 점도 관계자들

31) 이재욱, "신년사", 《文苑》(국립도서관보), 11호(1947. 1. 1).

32) 박봉석, "一郡一館", 《文苑》(국립도서관보), 12호(1947. 3. 1).

33) 당시 북조선에서 국가건설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북조선 각도에 군중문화 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도서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기설의 도서관에 있어서는 그 장서 중 반동적 서적은 숙청할 것 ②각급 인민위원회는 명년 2월까지 一郡一區所이상의 도서관을 시설하는 동시에 도서관에서는 북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신간도서 기타 인민에 요구되는 민주적 일체 문헌을 상비할 것 ③도서관에 대하여 경제적 원조를 주어 도서관 사무원의 대우를 개선할 것 ④도서관사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사업 협의기관을 설치할 것("3·8선 이북의 도서관

에게는 참고가 되었다.³⁴⁾ 도서관계는 「一郡一館」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가건설에 있어서 도서관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위정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일반 국민들이 농촌이나 도시 등 지역적 차별없이, 나이에 차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확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한편, 「一郡一館」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도서관계는 각 지방에 국립도서관 분관 내지는 지방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순회문고를 설치하는 노력들을 도모한다. 이것은 도시에 집중해 있는 도서관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지역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산간벽지까지 누구나 다같이 지식에 접근하고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다음의 글을 보면 순회문고 설치에 대한 의의를 알 수 있다.

도서관이 가진 목적이란 최대한의 대중에게 최대한으로 도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라면 건물이 필요하고 다수의 직원이 필요하고 건물이 있는 이상 여러 기구가 필요할 것은 물론이다.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내 관외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터지만 이것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서를 많은 대중에게 열람하게 하는 데 순회문고의 의의가 있다.³⁵⁾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순회문고의 설립은 '도서관은 모든 대중의 것이다'라는 명제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자가 열람하고자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와서 요구하는 도서를 대출만 하지 말고, 직접 도서를 가지고 나가 모든 대중 앞에 내놓고 읽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의 실천을 행한 것이다. 도서관봉사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정신은 다음의 인용문에도 드러난다. 이것은 1948년 11월 당시 수원문고를 신설하며 그것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으로의 도서관 확산에 대한 당시의 노력과 동시에 도서관 대중화 사업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사업", 《文苑》(국립도서관보), 11호(1947. 1. 1))

34)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8선 이북에 있어서도 목하 一郡一館을 목표로 하여 준 비중이라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할 바는 패전 일본에 있어서의 도서관 사업에 대한 그것이다. 일본은 패전 후 모든 도에 있어서 화급한 사업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서관령을 제정해서 민주주의 일본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하니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이 사업이 그 얼마나 긴요한 그것임을 證左하고 남는 바가 있다고 하겠거니와 다른 모든 외국 실정을 살펴보다도 위정자나 또는 일반국민이 모두 이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서울 각지에 대소도서관과 일반행정청은 물론 각종 문화단체와 밀접한 연락을 취해서 도서관망의 조성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한편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적이란 문화재를 지방인사들을 위해서 그 소통을 기해 그들이 손쉽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층 힘쓰고 있는 터이다." (이재욱, "신년사", 《文苑》(국립도서관보), 11호(1947. 1. 1))

35) 박희영, "순회문고론", 《文苑》(국립도서관보), 17호(1947. 7. 1).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수원 郡廳 廳내에 본관 직할문고「국립도서관수원문고」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지방인의 도서관사업인식, 도서관이용평가 즉 도서관열기 고취와 지방도서관진흥을 목표로 신설한 것이다. 이 문고는 수원뿐만이 아니라 장차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그 이용 방법은 군에서는 管下 面에, 面에서는 다시 각 부락의 성인교육협회와 장학사의 손을 빌어 희망도서를 요청하면 본관에서는 곧 순회문고로 요구에 응하며 산간벽지까지도 도서관의 혜택을 입도록 하자는 것이다.³⁶⁾

이 사업은 우리 농촌 가정생활과 도서관의 연결에 중점을 한 것으로 그 구체적 방법으로써 각각의 郡에 국립도서관 직할문고를 두어 그 郡이 중심이 되어 군에서는 관하 각각의 面을 통하여, 각 面에서는 각 부락으로 그 산과역할을 성인교육협회 장학사가 맡도록 하여 각 가정에까지 책의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것이었다. 또 각 가정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도서를 이러한 계통을 통하여 국립도서관에 요청하면 국립도서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하였다. 당시 수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국립도서관에서는 예산이 용납하는 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문고설치 운동은 지방으로 도서관운동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의 가치를 알리고자 지방 도서관사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설립과 확산 운동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의 공공도서관 상황은 앞서 <표 2>에서 보았듯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도서관 수의 부족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정부를 상대로 도서관 증설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서 박희영은 도서관 수의 절대적 부족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도서관증설을 정부에 요구한다.

… 현대 수도라고 칭하는 서울에 공개도서관이 3관밖에 없다. 인구비례로 아무리 적게 보아도 10관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3관에는 불과 5백명 밖에 수용 못하니 각 관은 연일 만원이다. … 문교부에서 수시 발표하고 있듯이 학교교육은 발전일로를 매진하여 현재는 상당히 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현재 미래가 아득한 것이 있다. 그 나라 출판은 그 나라 문화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나라 도서관 수, 그 나라 도서관 장서수는 그 나라 民度를 말하는 것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 학교교육만이 기를 쓰고 홀로 앞서가고 있다. … 만원으로 말미암아 입관못하는, 입관하였더라도 못들어오는 사람들을 동정하여 도서관 증설을 목매어 가며 부르짖고 있다. 도서관을 증설하자. 도서관을 확장하자.³⁷⁾

이와 같이 도서관 지도자들의 도서관 증설 운동에 힘입은 결과 국립도서관으로 1948년에

36) "수원에 본관 직할 문고 설치!", 《文苑》(국립도서관보), 33호(1948. 11. 1).

37) 박희영, "도서관을 증설하라", 《文苑》(국립도서관보), 26호(1948. 4. 1).

제주도립도서관, 1949년에 수원부립도서관, 이리도서관, 1950년에 전남도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사립도서관으로는 1946년 후반 서울에 영민도서관, 진주에 진주도서관, 1948년에는 전남 녹산도서관, 1949년 대구동촌후생문고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설립되었다.³⁸⁾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도서관을 증설하고 도서관을 확장하자는 도서관계 지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도서관 운동인자들은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와 동시에 도서관을 지원하고 후원할 사회세력들을 조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도서관 후원회이다. 이는 도서관 설립운동에 있어서 광범위한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 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도서관운동은 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도서관 후원회는 지방의 도서관 관계자들과 지역유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1948년 12월 대구를 비롯하여 1949년 1월 부산, 1949년 4월 대전 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부산 도서관 후원회가 결성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을 잠시 살펴보자.

大邱府立圖書館에서 처음으로 후원회를 조직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거니와 금번에는 항도 부산에도 도서관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과거 일정의 전통과 해방 후 과도기적 약조건 아래 문화사업, 도서관사업은 여지없이 침체되어 있어 그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 날로 향학열이 고조되어 점차 도서관의 그 사업의 중대성과 필요성이 일반에게 인식되어 도서관이용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 釜山府의 유지들 및 관계자들은 이에 응수코저 도서관의 확충 발전 운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금번에 釜山府의 鄭鍾哲씨의 이에 대한 각별한 원조와 유지의 절대적인 후원과 원조에 지난 1월 24일 드디어 부산관민이 다수 참석 하에 후원회 결성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고 한다. 방금 이 후원회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문화운동 도서관사업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대되는 바 많은데 참으로 경하로운 일이라 하겠다. 후원회 임원진으로 회장은 의학박사 朴己出씨, 부회장은 조선은행 부산지점장 崔德老씨, 釜山府洞會聯合會事務局長 金容駿씨, 이사장은 釜山府社會教育協會長 王教德씨가 임명되었고 그 외 이사가 49 여명이라고 한다.³⁹⁾

위 소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후원회 임원진은 그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유지와 도서관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연대적 차원에서 도서관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도서관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38)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통계월보』 5, 1949, p.4.

39) "약진하는 釜山府立圖書館", 《文苑》(국립도서관보), 37호(1949. 3. 1).

2. 독서운동

도서관설립 운동과 아울러 당시 도서관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지식확산과 보급에 있어 구체적이며 실질적 방안으로 독서운동을 펼쳐나갔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기반이 된다”⁴⁰⁾고 보며 지식의 힘을 역설하고 책을 읽을 것을 장려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식의 양식을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이용시키는 것에 현대 도서관의 사명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도서관이 일반대중에게 지식을 잘 보급시키느냐 못시키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문화수준의 향상이 결정된다”⁴¹⁾고 하며 지식보급과 국가 문화향상의 차원에서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럼 국립도서관 관장의 1949년 연두사를 참고해보자. 그 당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독서운동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 신년부터는 國民皆讀運動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려면 우선 조밀하고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첫째로 양서의 대대적 上梓, 둘째로 외국 우량 도서의 적극적 수입, 셋째 독서기관 확충증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서를 대대적으로 출판하려면 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외국 우량도서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려면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당분간은 정부 방면의 알선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며, 독서기관의 확충증설은 우선 그 당면문제로서 一郡一圖書館의 실현을 기필코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력이나마 이 國民皆讀運動을 위해서 粉骨碎身할 결심이며 또 이 운동이야말로 己丑新年에 있어서의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기를 기구해 마지않는 바이다.⁴²⁾

위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양서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보급하고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독서운동은 독서기관인 도서관 확충 운동과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독서운동은 지식과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립도서관 관장인 이재욱의 「농촌과 독서」라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독서는 그 독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그가 속하는 사회를 위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음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터이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 농촌에는 독서기관의 설비가 거의 없어 외국의 그것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독서열이 극히 희박함도 숨길 수 없는 뚜렷한 사실이라고 아니할

40) 이재욱, "농촌과 독서", 《文苑》(국립도서관보), 19호(1947. 9. 1).

41) "서적과 도서관의 사명", 《文苑》(국립도서관보), 14호(1947. 4. 1).

42) 이재욱, "연두사", 《文苑》(국립도서관보), 35호(1949. 1. 1).

수 없다. 우리 조선은 세계에 있어서 빈한 나라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문화재의 거의 전부가 중앙에 보유되어 있는 만큼 농촌인은 이 문화재 특히 도서에 접촉할 기회가 없다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하겠고 또 우리 농촌인은 외국의 그것과 비해서 너무나 생존을 위한 노동에 얽매인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 농촌사람이 새 국가건설에 동참하고 새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물정에 대한 비판안이 있어야 하기에 독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농촌사람들에게 지식의 산맥을 알리자는 의도로 각계각층의 권위자에게 국정을 충분히 알게 하는 양서를 발간하게 하여 이를 농촌에 보급하자. 더불어서 농촌에 독서기관인 도서관을 설치해서 문맹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⁴³⁾

이처럼 도시에 비해서 지식과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촌주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독서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농촌 곳곳에 세워나가는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운동 외 도서관협회에서도 1949년 9월 17일 독서주간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독서계몽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매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주일을 독서주간으로 설정하고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민중을 상대로 '읽기교육'운동을 벌여나갔다.⁴⁴⁾

독서운동은 당시 8할이라는 문맹을 가진 우리 민족에 있어서 문맹퇴치를 위한 일환으로 그리고 지식욕과 독서욕에 굶주린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지역적 차별없이 지식을 공급하려는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제의 지배하에서 민족문화를 박탈당해온 우리 민족이 해방의 노도 속에서 민족의 문화를 재건하고 세계문화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알지 않으면 안되고,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국민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된다.

3. 사회교육운동과의 연계

한편, 이러한 독서운동의 전개와 더불어서 당시의 도서관 운동은 사회교육운동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 당시 사회교육운동은 미군정 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제도교육 바깥의 차원에서 문맹퇴치교육, 성인교육, 국가 건설과 민주시민에 적합한 정신교육

43) 이재욱, "농촌과 독서", 《文苑》(국립도서관보), 19호(1949. 9. 1).

44) 참고로 도서관협회가 제정한 제1회 독서주간 표어 4종을 살펴보자. 그 당시 사회상과 도서관에 의한 독서계몽운동의 성격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독서는 내일의 행복', '잠시 독서 일생의 지식', '우리의 실생활을 독서로부터', '나도 읽고 너도 읽어 기르자 대한민국'. (한국도서관협회30년사편집위원회, 앞의 글, p.50.) 독서주간을 통한 집중적 독서운동은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

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사회교육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당시 도서관계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도서관을 증설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는 당시 도서관계의 사회교육운동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성인교육의 도장으로서의 시설로 사회교육적 입장에서 활약할 수가 있다면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대하여 갈 것이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가히 강조되는 작금에 있어 건국에 이바지하는 기본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도서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요컨대 성인교육의 도장으로서 우리 젊은 지식인들이 조선장래의 운명을 걸고서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가지고 일분이라도 아껴 연구할 수 있는 도서관이 증설되어 자유롭고 성스러운 학구적 생활을 통하여 학구적 정신과 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문교정책이 국가에 대하여 충실하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국정의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국민의 지적 수준은 성인교육에 의하여 발전 향상되며, 성인교육은 도서관의 존재를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니 도서관의 확충이 국가의 근본정책에 포섭 취급 될 수가 있다면 使用(利用)과 使命이 일치되는 세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의 합치를 볼 것이다.⁴⁵⁾

이처럼 도서관이 성인교육의 장으로서 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며,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당시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의 핵심적 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일제가 도서관의 역할을 교육적 역할에서 분리시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도서관을 식민지 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등 도서관의 역할을 왜곡하였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제에 의한 도서관 역할 왜곡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역할 인식을 제한시켜 사회교육의 주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도서관 이용고객이 주로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현실도 도서관이 성인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⁴⁶⁾ 그렇기에 당시의 도서관 운동을 사회교육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있어서 대중적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도서관 운동인자들은 도서관설립운동, 도서관 후원회 조직사업, 독서운동, 문맹퇴치 및 국민계몽운동 등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45) 김영문, "도서관과 성인교육- 사용과 이용에 있어서(원)", 《文苑》(국립도서관보), 32호(1948.10. 1).

46) 학생들의 공부방화 되는 도서관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된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적 상황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고객은 학생이었으며 성인들의 도서관 이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서관계 내부의 정비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특히 도서관인의 역할에 있어서 자각을 꾀하고 도서관 운영방침에 있어서도 대중에 대한 적극적 봉사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국립도서관 사서인 박희영은 '조선도서관계 혁신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도서관인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철저한 선전: 독서로서 얻는 이득을 선전하고 독서의 제일 필수 조건인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의 목적과 존재를 일반 민중에게 알려야 한다.
2. 도서관이용법지도: 독서법, 목록 검색법, 분야별 이용법의 지도로 도서관이 일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인식할 때까지 노력하여야 한다. 즉 민중의 생활 속으로 도서관은 도서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
3. 과학적인 정리방법: 알기 쉽고,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열람제도, 열람규정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도서의 수집: 양서를 선택하되 각 부분의 배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적극적인 열람장려: 열람자가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오게 할 것과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사람을 알고,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고, 민중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알고, 어떻게 하면 가장 옹호할 수 있을까 연구하여야 한다. 사무에서 연구로 보수에서 건설로 매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6. 아동열람장려: 우리의 계승자요 또한 크게는 아동기부터 독서라는 것과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⁴⁷⁾

위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도서관의 역할과 그 운영방향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의식은 매우 진보적이며 발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 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시대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사회전반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 문화를 뿌리내리려는 도서관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국가와 국민의 우선적인 관심영역에서 밀려나고 도서관계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V. 공공도서관 운동의 평가

앞서 언급한 해방 직후 한국 도서관계의 활동 상황과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의 구체적 발달과정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의 발달

47) 박희영, "조선 도서관계 혁신에 대하여", 《文苑》(국립도서관보), 14호(1947. 4. 1).

을 위한 주변 도서관계의 여건들이 더 좋하게나마 형성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적인 전문적 사서양성제도가 확립되고, 조선도서관협회와 같은 도서관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도서관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도서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진행된 이와 같은 도서관계의 여러 활동은 일제의 도서관제도의 청산과 더불어 미국의 도서관 제도가 수용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한국 도서관사에 있어서 실로 의미로운 작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행된 공공도서관 운동은 해방 후 국가재건사업이라는 국가적 환경 속에서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통한 우리문화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대중의 지식욕에 응답하는 주요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첫째로 해방 이후 과도기적 혼란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전국에 지식과 정보의 접근점이 되는 도서관망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둘째로는 도서관 이용가치 인식의 고취, 독서장려 등으로 민족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도서관 지도자들이 지식의 중요성, 그것의 보급과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차원에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실천해 나갔다는 점은 지식정보시대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서관 운동인자들은 일제의 식민치하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이유를 바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식수준이 뒤떨어졌다는 데서 찾았다. 그렇기에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문자보급과 지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도서관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이 시기 도서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도서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도서관인들의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노력은 그 이후 진행된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열성적이었다는 점을 김세익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하고 애국적이며 열성적인 해방 직후의 도서관인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후의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형국의 고된 길을 걸어야 했으며 그 고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⁴⁸⁾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도서관 운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운동인자의 헌신성과 탁월성을 빠트릴 수 없는 것이다. 이재욱, 박봉석, 박희영 등 국립도서관⁴⁹⁾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인물

48) 김세익, 앞의 글, p.242

49) 국립도서관의 경우 당시의 도서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중앙핵심체로 지방의 각 도서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역할을 제공하는가 하면 새로이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학교, 개인들에 대해서도 설립에 필요한 운영상의 관리방법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김봉희, 앞의 글, p.50.)

들은 이 시기에 있어 도서관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내고 지식의 보급과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 대중화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이들의 선구적인 활동으로 해방 후 도서관계의 기반이 그나마 확보될 수 있었다.

특히 박봉석은 도서관운동에 있어서 독보적인 인물로 현재까지도 한국 도서관계의 개척자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가 도서관계에 이룩한 업적을 잠시 살펴보자. 박봉석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재직하였으며 해방 직후 혼란의 과정에 일제로부터 도서관을 안전하게 인수하고, 건국의 자료가 될만한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미군정 하에서는 법률도서 수호에 앞장서는 등 혼란기의 도서관 운영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부터 1950년 7월까지 5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서지도구로서 「朝鮮十進分類表」와 「朝鮮東書編目規則」을 편찬하여 그전까지 통일되지 않은 채로 사용하던 도서관계의 상황을 마무리함으로써 한국 도서관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⁵⁰⁾ 이러한 업적 외에도 도서관인들의 단체인 「조선도서관협회」의 발족과 도서관계 인재양성을 위한 「국립도서관학교」를 세우는 등 도서관계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부단히 이행하였다. 박봉석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한 원종린은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박봉석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는 도서관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으며, 도서관을 통해서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다가 끝내는 6·25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난길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도서관에 몸을 송두리채 던져버린 사람이다.⁵¹⁾

이상에서 보듯이 박봉석은 도서관을 통해 애국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이론과 토대를 다진 인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도서관인이었다. 우리 도서관계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인 박봉석은 ‘미국 도서관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메릴 듀이와 견줄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희영도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착에 힘써온 사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해방 직후를 회고하는 박희영의 다음의 글에서 우리는 사서로서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잠시 들여다보자.

당시에는 모든 출판물이 모두 가두에서만 판매되었다. 심지어는 신문까지도 배달되지

50) 「朝鮮十進分類表」와 「朝鮮東書編目規則」은 그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표와 목록법으로서 서구식 분류법과 목록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건국의 도서관계에 있어서 분류와 목록의 통일을 담보하는 구실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51) 원종린, "朴奉石의 圖書館思想研究-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논문집》, 18집 (1982), p.9.

않고 가두에서 사서 보게 되어 있었다. 국립도서관은 돈을 들이지 않고 출판물을 수집하고자 했다. 즉 되도록 기증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루의 신문은 모으려면 신문이 여러 종류가 발행되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일일이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기증을 받아야 했다. 잡지가 대개 일·이호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아 다녀야 할 잡지사의 수는 반대로 많았다. … 또한 정당·사회단체들이 매일 수차례씩 거리에 뿌리고 벽에 붙이는 빠라 포스트를 한 장도 빼지 말고 수집하기 위해 각 정당·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달라고 하였고, 또 거리에서 줌고, 우리가 없는 포스터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물을 칠해서 떼어 오기도 하였으므로 때로는 반대당인 줄 오인받기도 하였다. 교통이 불편하였던 당시임으로 하루에 몇십리를 걸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年少하였을 때이기에? 하고 추억된다.⁵²⁾

바로 박희영은 사서로서 '문헌에 대한 책임감'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혼란기적 상황에서도 곳곳에 뿌려지는 문헌을 일차적으로 수집하려는 사서로서의 철저한 직업의식은 우리에게 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후에도 박희영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는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거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박봉석, 박희영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도서관 운동인자들에 의한 「一郡一館」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식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 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서관은 우리 사회에서 그 저변이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국가재건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육성을 받아내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도 혼돈스러웠고 경제적 여건 또한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문맹퇴치가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 도서관이 가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가의 인식 부족도 도서관 확충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의 증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원 또한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이 시기는 도서관 운동의 적극성을 담보해내기에는 그 시대 상황의 열악성이 너무 컸던 것이다. 누구나 다 생활에 쪼들려서 먹고 살기에 바빴고, 더욱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도서관계에 있어서의 난관이었으며 이것은 도서관 운동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운동 세력들은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도서관을 우리 국민의 생활 속으로 이끌어 넣어 국민의 지적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 수준향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곧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쟁은 도서관계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때까지의 도서관인들의 노력과 성과들은 전쟁으로 인해 축적되지 못하고 도서관계는 다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우리 도서관계의 선각자이며 개척자인 박봉석이란

52) 박희영, "도서관과 더불어", 《도협월보》, 6권 2호(1965. 3), pp.17-18.

걸출한 인물을 한국전쟁 속에서 잃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도서관계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VI. 결 론

개화기 때 서적과 지식의 확산과 보급운동으로 시작된 한국 근대적 도서관 운동이 일제를 거치면서 도서관이 식민지 정책의 구현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도서관 운동은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도서관 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도서관계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일제의 도서관을 온전히 이관하여 해방된 조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우리 민중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다.

미군정기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해방정국의 혼란기적 상황에서도 도서관 운동인자들은 '지식 보급과 확산'의 일환으로 도서관 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도서관계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서구식 도서관 교육제도인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세워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인들의 결집체인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한국 도서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서 도서관 운동의 저변확대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가치로운 작업이었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기반이 조성되는 가운데 도서관설립운동, 도서관 후원회 사업, 독서운동 사업, 문맹퇴치 운동 및 사회교육운동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도서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이라는 시대적 혼란의 상황과 그 뒤로 이어진 전쟁이라는 상황이 당시의 도서관의 기반을 확보하고 도서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미약했고, 사회로부터의 인식 또한 저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운동은 우리 도서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현대적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도서관계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으며, 해방 직후의 혼란기적 상황에서도 우리 도서관 인자들이 도서관 운동을 통해 지식보급과 확산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데서 그 시대의 개척기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국립중앙도서관, 1973.
- 김봉희. "미군정기 도서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2, 1996.
-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 종로서적, 1982.
- 김영기.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사회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9.
- 김영문. "도서관과 성인교육- 사용과 이용에 있어서", 《文苑》(국립도서관보), 31호(1948. 9. 1).
- 김영문. "도서관과 성인교육- 사용과 이용에 있어서(완)", 《文苑》(국립도서관보), 32호(1948. 10. 1).
- 김종문. 『부산시립도서관략사』, 부산시립도서관, 1969.
- 김인용. "미군정기 한국 교육 전개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2.
- 김포옥. 「일제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78.
-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 연구-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0.
- 라성(LA)·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해방조선』, 미주: 라성(LA)과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8.
- 박기홍. "아버님을 思慕하면서", 《도협월보》, 1권 8호(1960. 11)
- 박봉석. "一郡一館", 《文苑》(국립도서관보), 12호(1947. 3. 1).
- 박희영. "조선 도서관계 혁신에 대하여", 《文苑》(국립도서관보), 14호(1947. 4. 1).
- 박희영. "순회문고론", 《文苑》(국립도서관보), 17호(1947. 7. 1).
- 박희영. "도서관을 증설하라", 《文苑》(국립도서관보), 26호(1948. 4. 1).
- 박희영. "한국의 도서관과 박봉석", 《도서관》, 127(1968. 7·8).
- 박희영, "도서관과 더불어", 《도협월보》, 6권 2호(1965. 3).
-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69.
-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 60년사』,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1982.
-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종로도서관 60년사』,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980.
- 옥철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주도세력의 형성과 교육개혁의 성격」, 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원종린. "朴奉石의 圖書館思想研究-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공주교대논문집》, 18집(1982).
- 원종린. 「박봉석의 도서관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1980.

-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성립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7.
- 이재욱. "신년사", 《文苑》(국립도서관보), 11호(1947. 1. 1).
- 이재욱. "농촌과 독서", 《文苑》(국립도서관보), 19호(1947. 9. 1).
- 이재욱. "연두사", 《文苑》(국립도서관보), 35호(1949. 1. 1).
- 이춘희. "도서관", 『서울 600년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 임억규. "독서운동과 농민: 독서주간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1957. 10. 25-28.
-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 교육사 자료집』 상, 하, 홍지원, 1992.
-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조선통신사, 1947.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 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출판국, 1974.
- 한국도서관협회30년사 편집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30년사』, 한국도서관협회, 1977.
- 한준상·김성학. 『현대 한국 교육의 인식』, 청하, 1990.
-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 홍의균.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18·19세기 영미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1986.
- "3·8선 이북의 도서관 사업", 《文苑》(국립도서관보), 11호(1947. 1. 1)
- "서적과 도서관의 사명", 《文苑》(국립도서관보), 14호(1947. 4. 1).
- "수원에 분관 직할 문고 설치!", 《文苑》(국립도서관보), 33호(1948. 11. 1).
- "약진하는 釜山府立圖書館", 《文苑》(국립도서관보), 37호(1949. 3. 1).
- "軍政法令은 修正해주: 法律書籍은 그냥 두우", 《漢城日報》, 1946. 5. 5.
- "농촌에 순회문고", 《동아일보》, 1949. 5. 17.
- "문화건설을 목표 농촌도서관 신설", 《동아일보》, 1947. 7. 30.